

1번 문제 답①

: 법흥왕의 업적과 관련된 문제이다. ② 지증왕의 업적 ③ 신문왕의 업적 ④진흥왕의 업적

2번 문제 답②

: 지문의 내용은 6·10항쟁과 관련된 내용이다. 6·10 항쟁의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.

①번 전두환의 정권 장악 시기이며 ③번은 6·10 항쟁 때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고, ④번은 유신헌법의 내용이다.

3번 문제 답④

: 직지심체요절은 1800년대 말 프랑스의 외교관이 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에서 의궤를 약탈해 갔다.

4번 문제 답③

: 위 시기는 12세기 초 고려 숙종 시대로서 이 시기에는 대도시에 주점,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두게 된다.

①번은 조선시대 대동법 실시 이후이고, ②번은 조선 정조때의 내용이고, ③번은 신라 6세기 지증왕 때의 내용이다.

5번 문제 답③

: 조선 전기에 조선 정부는 조선통보와 저화 등을 보급했지만, 유통은 부진했고, 농민들은 주로 현물화폐(쌀, 무명)등을 사용하였다.

6번 문제 답①

: 지문의 내용은 군국기무처를 의미하는 것이며 군국기무처의 개혁은 1차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. 그러므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인 은분위 화폐제도의 실시가 답이 된다.

②번은 임오군란 직후 대원군의 개혁이고, ③번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고, ④번은 2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서 2차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가 폐지되므로 답이 될 수 없다.

7번 문제 답④

: (가)는 신문왕의 녹읍폐지이고 (나)는 경덕왕의 녹읍 부활이므로 중대 시기의 내용을 묻는 문제로 볼 수 있다.

①번은 법흥왕으로서 신라 상대이므로 신문왕 이전이고, ②번은 신라 상대의 일로서 진지왕이 화백회의에서 폐위되고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이 즉위하였고, ③번은 신라 하대의 상황으로서 경덕왕 이후라고 볼 수 있다.

8번 문제 답③

: 위 지문은 향약(향촌자치규약)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약의 성격은 전통적 공동조직·미풍양속+ 유교윤리(삼강오륜 중심), 향촌자치기능을 담당했으며, 풍속교화와 향촌 사회 질서 유지, 치안담당과 사림의 지위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. 하지만 지방 유력자의 주민 위협이나 수탈의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부작용도 존재하고 있었다. 결국 ①②④번은 향약의 옳은 내용이고 ③번의 내용은 고려시대의 향도로 볼 수 있다.

9번 문제 답②

: 평랑과 평랑의 처는 모두 사노비이며 외거노비로 해석할 수 있다.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외거노비는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, 노비이므로 매매·상속·증여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답은 ㄱ과 ㄴ이 될 수 있다.

ㄴ의 경우 슬거노비의 내용인데 평랑은 외거노비이며, ㄷ의 경우 평랑의 처는 사노비이므로 신공을 바친다면 주인에게 바쳤을 것이다.

10번 문제 답③

: 지문의 내용은 화폐 정리 사업(1905~1909)으로서 백동화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해서 교환해 주었기 때문에 국내 상공업자, 자본가 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.

④의 경우 일본이 화폐 정리를 실시한 명목으로 물가상승을 조정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.

11번 문제 답②

: (가)는 동예의 책화 (나)는 옥저의 가족공동무덤이다. 옥저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으므로 ②번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, ①번은 고구려의 내용이고, ③번은 옥저와 동예 모두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였으며, ④번은 제가회의는 고구려에 존재하던 회의였으므로 틀린 내용으로 볼 수 있다.

12번 문제 답④

: ①②③번은 모두 영조의 업적으로 볼 수 있지만 ④번의 경우 정조의 준론탕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조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였고, 영조는 완론탕평을 실시하는데 이는 정조의 준론탕평보다는 조금 완화된 성격의 탕평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주로 타협적인 인물을 많이 등용하게 된다.

13번 문제 답②

: 지문의 신민회는 주로 서간도 지역에 경학사, 부민단, 신흥 무관 학교를 세우게 되며, 권업회는 최재형, 홍범도 등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설치된 독립운동단체로서 연해주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신민회가 서간도에 설치한 기관으로 볼 수가 없다.

14번 문제 답①

: (가)는 경신참변(간도참변:1920.10~1921.1)이며 (나)는 이봉창의 도쿄에서 일본 국왕 폭살을 기도한 사건(1932)이다. (가)와(나) 사이의 무장 항일 운동을 고르는 문제이므로, 1929년~1930년 사이에 결성된 조선 혁명군의 창설(㉠)이 답이 된다.

㉡번의 국내진공작전은 1945년 9월을 목표로 준비하였지만, 일본의 너무 이른 항복선언으로 실패하였고, ㉢봉오동·청산리 전투는 (1920년 6월·10월)이므로 (가)간도참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간도참변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, ㉣동북항일연군은 1936년에 여러 차례 국내 진공 작전을 실시하였고, (함경도)보천보전투(1937)가 대표적인 전투이다.

15번 문제 답①

: 조선 전기 사림은 향촌자치를 주장하고, 왕도정치를 강조하였으며, 3사언관직을 차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표방하였으며, 중소지주적인 배경으로 지방사족이 영남과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, 그 외에 성리학에만 투철하여 다른 사상을 배격하는 성향이 있었고, 정몽주와 길재의 학풍을 계승하였다. 하지만 ㉠번의 산림이 존중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 봉당이 심화되며 나타난 현상이고 결국 영조는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.

16번 문제 답②

: ㄴ(4세기 근초고왕) → ㄹ(5세기 장수왕) → ㄷ(6세기 진흥왕) → ㄱ(7세기 의자왕)

17번 문제 답④

: 문제의 호락논쟁은 노론 내부에서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호론과 인물성동론을 주장한 낙론이 논쟁을 벌인 사건으로서 ㉣의 북학파의 기출존중과 이용후생사상을 주장한 것은 낙론이므로 정답은 ㉣번이 된다.

18번 문제 답④

: ㉣번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한 시기가 1948년 9월 이므로 (라)에 들어가는 것이 맞으므로 정답이 된다.

㉠번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을 제정한 것은 1941년으로 광복 이전이고
㉡번은 북한 정부의 수립은 1948년 9월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보다도 느리며,
㉢번은 1948년 4월에 김구,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으므로 (다)가 아니라 (나)에 들어가야 한다. 즉, 5·10총선거(1948년 5월)이전에 방북하게 된다.

19번 문제 답④

: 위 지문은 일연의 삼국유사의 역사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답은 우리 고유 문화와 전통 중시와 단군신화를 수록했다인 ㉣번이 된다.

㉠㉡의 경우에 보수적인 경향의 설명으로서 이제현의 사략이나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생각할 수 있으며, ㉢번은 무신정권때 쓰여진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생각할 수 있다. 동명왕편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지만 단군조서의 이야기는 나와있지 않다.

20번 문제 답③

: 위 지문은 재상(총재)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세종대왕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하며 실시된 의정부 서사제를 답으로 볼 수 있으며, ①번의 육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때 실시된 왕권강화를 무엇보다 중시한 제도이고 ②번은 태종 때 사간원의 독립을 의미하는데 이는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독립시킨 것이고 재상(총재)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, ④번의 집현전의 설치의 정책연구를 위해 세종이 설치한 기구이다.